

이산하 서사시 「한라산」 연구

김 동 윤*

차 례

1. 머리말
2. 「한라산」의 창작 경위와 서지 사항 검토
3. 「한라산」의 4·3 인식과 그 지향점
4. 한라산의 의의와 한계
5. 맺음말

1. 머리말

이산하¹⁾의 장편서사시 「한라산」은 1980년대 후반 문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작품이다. 1987년 봄 사회과학전문 무크지인 『녹두서평 1』을 통해 이 작품이 발표되자 이산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즉시 수배되어²⁾ 몇 달 동안의 도피 끝에 11월 11일 구속되었으며, 1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1) 본명은 이상백. 1960년 경상북도 영일에서 태어나 1982년 '이룡'이라는 필명으로 『시운동』에 연작시 「존재의 놀이」 등을 발표하며 등단했으며, 시집으로 『불심검문시대』(여명, 1988)·『천둥 같은 그리움으로』(문학동네, 1999), 자전적 성장소설 『양철북』(시공사, 2003), 산사기행집 『적멸보궁 가는 길』(이룸, 2002) 등이 있다. 체 계바라의 시집 『먼 저편』(문학산책, 2003)을 엮어내기도 했다. 『불심검문시대』는 이산하가 옥중에 있을 때 신석호 등 친구들이 그의 시 30편을 모아 엮어낸 시집인데, 이 시집에 실렸던 12편의 시는 『천둥 같은 그리움으로』에 재수록되었다.

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다음해 10월 개천절 특사로 출감할 때까지 1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다.³⁾ 이처럼 「한라산」은 필화사건만으로도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작품이지만, 정작 이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 글에서는 텍스트와 창작 경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특히 「한라산」은 최근에 이른바 '복원판'이라는 이름 아래 단행본 시집으로 간행되었는데, 그 시집의 내용은 처음의 텍스트와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 두 텍스트가 상이점이 많다는 사실은 그것에 대한 면밀한 대비 고찰의 필요성도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텍스트가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창작 경위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서지 사항과 창작 경위의 검토에 이어 「한라산」의 성격과 의의 등을 고찰함이 마땅한바, 이 글에서는 4·3문학의 맥락에서 그것을 밝히는 데 주력키로 한다. 이를 위해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 분석을 토대로 하여 「한라산」의 지향점을 규명함과 아울러, 시인이 제주 4·3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4·3문학 혹은 4·3운동의 차원에서 볼 때 그 의의와 한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2. 「한라산」의 창작 경위와 서지 사항 검토

「한라산」은 이산하가 1987년 2월에 탈고하여⁴⁾ 3월 25일자로 나온 『녹두

- 2) “『녹두서평』의 박기상, 양기철, 정태인, 최창남 등 다른 필자들도 유탄을 맞아 대부분 수배되”(이산하, 「저자 후기」, 『한라산』(시학사, 2003), 141~142쪽)였으며, “녹두출판사 발행인 김영호는 1988년 2월 27일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5년, 녹두출판사 전무 신행식은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심석호, 「서문」, 『불심검문시대』, 9쪽)는 등 이산하 외에도 많은 이들이 고초를 겪었다.
- 3) 하웅백, 「친구야, 이제 다리를 건너거라」(문학세상, 2001), 31쪽; 「『한라산』 시인 이산하 씨 2심서도 징역 1년 6월」, 『한겨레신문』 1988년 8월 28일자.

서평 1』을 통해 발표한 작품이다.⁵⁾ 필화사건을 겪으며 판매(구독)금지되었던 이 작품은 16년 만인 2003년 6월 '복원판'이라는 이름의 단행본 시집으로 나왔다.

이산하가 이 작품을 쓰기로 작정한 것은 1986년 여름 이후였던 것 같다. 당시 그는 '민족해방서사시 전 4부작'(백두산·한라산·지리산·무등산)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출판사 편집부 직원을 만나 '두툼한 일본판 번역원고'를 입수하게 되었는데 그 원고가 "무려 40년이나 묻혀 있던 제주4·3사건의 진실을 폭로한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김봉현·김민주 공저)였다"⁶⁾고 했다. 그것을 밤새워 읽으며 사태의 전말을 접한 그는 자신의 존재와 의식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내용의 민감성과 조총련 공산주의자인 저자 김봉현의 신분 때문에 출판이 여의치 않자 출판사 사장은 그것을 시로 써볼 것을 이산하에게 권했고 이산하는 그 권고를 받아들였다.

쓰기로 결단을 내린 다음부터는 4·3 주변 참고 자료준비 등 은밀하게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4·3에 대한 극우적 관변자료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고 현대사 전공자들 역시 제대로 아는 이들이 드물었다. 더구나 1986년 전두환 독재정권의 살벌한 공안정국에서 수배자 신분으로 제주 현지까지 내려가 생존자들의 증언을 취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니 본래대로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를 저본으로 해서 시적으로 각색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이 저본은 기적처럼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격정적인 문체로 쓰여져 있어서 시적인 코드로의 전환은 다소 편할 수 있었다.⁷⁾

4) 이산하는 "1987년 2월, 「한라산」의 최종원고인 서시를 출판사에 넘겼"(「저자 후기」, 앞의 책, 140쪽)다고 했다.

5) 이산하의 「한라산」을 수록한 「녹두서평 1」은 1987년 3월 25일자로 발행되었다. 이 책의 간기(刊記)에는 '1986년'으로 인쇄되어 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는 '1987년'의 명백한 오식(誤植)임이 확인되었다. 필자는 잘못된 간기를 근거로 「4·3의 진실과 문학」(각, 2003), 20·44·49쪽에서 「한라산」 발표 연도를 1986년으로 명기한 바 있다. 제주4·3연구소에서 펴낸 『제주항쟁』(실천문화사, 1991), 325쪽에도 1986년에 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산하, 「저자 후기」, 앞의 책, 133~134쪽.

이산하는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를 저본(底本)으로 해서 현장취재 없이 장편서사시 「한라산」을 집필했다는 것이다. 김형수 시인이 창작에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⁸⁾도 밝혔다. 그런데 이산하의 이러한 회고에는 한 가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일본판 번역 원고’로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를 읽었다고 했는데, 이는 김봉현의 『제주도 피의 역사』⁹⁾를 두고 오해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¹⁰⁾는 번역원고가 아니라 일본 오사카에서 한글판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두 책에 비슷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이산하가 저본으로 삼았다는 책은 『제주도 피의 역사』 번역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 피의 역사』의 경우 번역본이 「한라산」 발표 후인 1988년 출간된 『잠들지 않는 남도』¹¹⁾에 게재되었는데, 국내 출판물로 나오기 전에 이미 관심 있는 이들이 그러한 번역본을 복사해 읽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산하가 접했다는 번역원고는 그런 부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산하가 『제주도 피의 역사』 번역본을 참조한 사실은, 『잠들지 않는 남도』에 실린 번역본과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이 여러 군데서 확인된다.

① 작품 41~42쪽¹²⁾에 나온 유격대 봉기문은 번역본 143쪽¹³⁾의 것으로

7) 위의 책, 136~137쪽.

8) 이산하는 “그(김형수: 인용자)가 1차 밑그림 작업을 해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나는 또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최종적으로 작품을 완성시켜나갔다. 세부적으로는 서시와 4장 후반부를 제외한 1장부터 3장 등이 그런 작업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이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 위의 책, 138쪽.

9) 金奉鉉, 『濟州島血の歴史—4·3武裝闘争の記録』(東京: 國書刊行會, 1978). 아라리 연구원에서 펴낸 『제주민중항쟁』(소나무, 1988)에 원문 영인본이 수록되었다.

10) 金奉鉉·金民柱, 『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闘争史』(大阪: 文友社, 1964).

11) 노민영, 『잠들지 않는 남도』(은누리, 1988), 77~256쪽. 서문과 7·8장이 제외되고 내용 중 일부를 삭제·교정하여 편역되면서 「제주도 4·3항쟁의 현장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12) 『늑두서평 1』의 쪽수를 말한다.

했다가 시화사판에서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¹⁴⁾ 84~85쪽에 나온 것으로 교체하였다.

② 작품 33쪽의 “3·1혁명정신으로 조국의 통일독립을 쟁취하자!” 등의 구호는 번역본 116쪽의 것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에는 “3·1정신으로 통일독립을 전취하자” 등으로 다소 달리 표현되어 있다.

③ 작품 44쪽에 나온 이승만·조병옥·신성모의 발언은 번역본 180~181쪽과 대동소이하다.

④ 작품 47쪽의 “섬의 해안에서 한라산 기슭까지/ 저 물샐 틈 없는 첩보 경계망/ 손 묶고 발 묶고/ 거동의 자유마저 박탈해가는/ 도민증·양민증·석방증” 부분은 번역본 154쪽에 나온 “섬의 해안선으로부터 한라산의 초입까지 물샐틈없는 첩보·경비망을 펼쳐 ‘도민증, 양민증, 통행증, 석방증’ 등으로 도민의 수족을 묶고 행동의 자유를 빼앗았다”는 부분과 매우 유사하다.

⑤ 작품 65~66쪽의 ‘바베큐 작전’이라는 용어는 번역본 190쪽에 나온다.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에는 이런 용어가 보이지 않는다.

⑥ 작품 66쪽의 “풀과 나무뿌리, 버섯 그리고 주민들이 몰래 갖다주는/ 쫄쫄떡과 미수가루, 고구마, 감자 등을 먹으며/ 가끔 죽창으로 잡은 물고기나 산토끼, 노루 등을 구워 허기를 채우기도 했다/ 장작은 연기가 나지 않는 싸리나무, 맹게나무, 덩굴 등을 사용했다”는 대목은 번역본 182쪽의 “게릴라들은 주로 나무뿌리나 풀뿌리, 곡류, 주민들로부터 보내져온 ‘찰떡’, ‘고구마’, ‘감자’ 등으로 허기를 달래었고, 간혹 잡히는 동물의 고기가 그렇게 달콤할 수 없었다. 연료로는 연기가 나지 않는 감나무, 싸리나

13) 여기서의 번역본은 『잠들지 않는 남도』에 수록된 것을 지칭한다. 물론 『잠들지 않는 남도』는 이산하 「한라산」보다 1년 늦은 1988년에 출판된 것이지만, 그 번역본이 이전부터 읽혀졌다는 전제하에, 편의상 『잠들지 않는 남도』에 실린 김봉현 글의 쪽수를 명시한다.

14)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는 『제주민중항쟁Ⅱ』(소나무, 1988)에 영인된 것을 참조하였다.

무 등이 사용되었다.”는 부분을 참조한 듯하다.

이런 점들을 볼 때 「한라산」의 저본은 『제주도 피의 역사』였음이 틀림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작품에서 많은 분량이 할애된 4·28협상의 정황과 대화내용은 정창국의 「피로 물든 제주도」¹⁵⁾의 것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는데, 저본 외의 참고 자료로 이를 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제주도 피의 역사』를 저본으로 다른 현대사 자료들도 참조하면서 김형수 시인의 도움을 받아 집필한 것이 이산하의 녹두서평판 「한라산」인 셈이다.

여기서 최근에 단행본 시집으로 엮어진 「한라산」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작품의 지향점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이산하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주목된다.

「한라산」 원고 역시 인쇄소에선 ‘빨갱이’나 ‘고첩(고정간첩)’이 썼다며 경악했다. (...) 나는 출판사측과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한 발 물러서더라도 4·3의 진실은 알려야 한다고 판단해 작품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아이러니지만 ‘이데올로기의 마지노선’을 넘어버렸다는 「한라산」도 실은 ‘자기검열’을 거친 작품이었다.

이 점에 대해 나는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다. 왜냐하면 타협해서는 안 될 문제를 타협해서라도 풀겠다는 마음의 틈새를 스스로에게 들켰기 때문이다. 늦게나마 그것을 조금이라도 덮어보려는 듯 이번에 내는 시집에는 그때 삭제하거나 완곡하게 수정한 대목들을 모두 복원했다. 말하자면 ‘복원판’ 「한라산」인 셈인데, 이 외에도 시간에 쫓겨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 확인과 어색하고 생경한 대목들은 부분적으로 손질했으므로 ‘녹두서평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¹⁶⁾

인용문에서 보면 단행본으로 나온 『한라산』의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자기검열로 삭제하거나 수정한 대목들

15) 『중앙일보』에 1983년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연재됨. 『제주민중항쟁 I』에도 실려 있는데, 4·28협상 부분은 385~390쪽에 나와 있다.

16) 이산하, 「저자 후기」, 앞의 책, 140~141쪽.

을 되살린 ‘복원판’이라는 것이다. 둘째, 당시 시간에 쫓겨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여 고쳤다는 것이다. 셋째, 어색하고 생경한 대목들을 부분적으로 손질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녹두서평 발표작과 시학사에서 펴낸 단행본을 대조해가며 읽어 보면 복원판이라기보다는 ‘개정판’의 성격이 더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검열로 삭제하거나 고쳤던 대목들을 시집으로 펴내며 원래대로 복원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그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어째서 그렇게 여겨지는지 작품의 대비를 통해서 살펴보자.

녹두서평판	시학사판
<p>그 누구도 잠들 수 없는 이 해방의 산하에/ 싹둑 잘려나간 손가락이 아직도 팔팔 살아뛰는 붉은 피가 있어/ 농약 먹은 가슴으로 타오르는 싹붉은 피가 있어/ 탄환의 불꽃으로/ 탄환의 불꽃으로/ 저 험벗고 굶주린 노동자 농민들의 여윈 손들이 숲을 이룰 때까지/ 마침내 해방의 숲을 이룰 때까지/ 적들의 심장에 불벼락을 안겨주자!!/ 적들의 시체를 넘고 넘어 동지의 시체를 되돌려 받자, 받자!!!(20~21쪽)</p>	<p>그 누구도 잠들 수 없는 이 혁명의 산하에/ 싹둑 잘려나간 손가락이 아직도 펄펄 살아 뛰는/ 붉은 피가 있어/ 농약 먹은 가슴으로 타오르는 싹붉은 피가 있어/ 민족해방의 불꽃으로/ 조국통일의 불꽃으로/ 이 험벗고 굶주린 노동자 농민들의 여윈 손들이 / 마침내/ 혁명의 숲을 이룰 때까지/ 저 간악한 제국주의자들의 각을 뜨고 / 그 ‘美親 허수아비들’의 심장에 불벼락을 안겨주자!/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한 조국의 영혼들에게/ 적들의 시체를 넘고 넘어 동지들의 원수를 갚아주자!!/ 그리하여/ 천 년의 세월이 흐를지라도/ 결코/ 용서하지도 말고/ 결단코/ 잊지도 말자!!!(20~22쪽)</p>

예시한 부분은, 녹두서평판과 시학사판의 다른 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녹두서평판의 ‘해방의 산하’와 ‘해방의 숲’을 시학사판에서는 ‘혁명의 산하’와 ‘혁명의 숲’으로 바꾸었다. 반복되는 ‘탄환의 불꽃’도 ‘민족해방의 불꽃’과 ‘조국통일의 불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적들’을 ‘美親 허수아비들’로 구체화하였다.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한 조국의 영혼들에게’

와 '그리하여~잊지는 말자'라는 부분은 새로이 추가되고 있다. 말하자면 녹두서평판 텍스트에서 시어를 바꾸고 의미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대목들을 추가한 것이 시학사판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 관련 부분은 좀더 확실한 의미 전달을 꾀하고 있다. “우리 군대가 절대 미군의 병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시학사, 128쪽)라는 부분은 새로 씌어진 부분이다. ‘그들은’(녹두서평, 15쪽)을 ‘미제국주의자’로, ‘정찰기’·‘함대’(18쪽)를 ‘미군 정찰기’·‘미군 함대’로, ‘너희’(20쪽)를 ‘너희 양키’로, ‘그들의 방법’(24쪽)을 ‘미제국주의의 간교한 술책’으로 단어를 첨가하였다. 반미 성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사례들은 자기검열로 삭제하거나 수정했던 것들을 복원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한 연 전체를 완전히 삭제한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단행본 『한라산』을 복원판이 아닌 개정판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된다.

여기저기 짓다 만 눈발에서 운종은 배추잎이 머리의 돈독처럼 한움큼씩 돌아나고, 설움에 여윈 나무들도 해골처럼 서 있지만 여인처럼 길어진 머리칼이 곱게 늘어져 앙상한 뼈다귀를 가려주었다. 슬픔으로 가득차 수심만 깊었던 멍든 저수지에도 물이 다 빠져 울렁거리거나 오장육부가 흔들리지 않았다. 해방의 전사들이 뼈를 깎아 견뎌내던 감옥소도 텅텅 비어버렸다.(25쪽)

철, 썩, 철, 썩/ 밤하늘에 수놓은 화염 속에서/ 철, 썩, 철, 썩/ 어둠에 맞서 소리쳐 일어나는(42쪽)

작품 전반의 성향으로 볼 때 대체로 정서적인 차원에서 호소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상 전개에는 큰 의미가 없는 부분들로 생각되어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공산주의 전통과 노련한 지도자들을 가진 나라, 그 나라의 인민들이 체온처럼 배인 주눅을 벗어내고 이 뜨거운 해방의 날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시작된 해방의 매듭을 짓기 위해 한창 흘쩍이며 용을 틀고 있을 때”(25쪽)라는 부분도 삭제했다. ‘공산주의 전통’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려 삭제하지 않았나 한다. 다음은 한 연 전체를 완전히 바꾼 부분이다.

녹두서평판	시학사판
<p>파고는 높아갔다/ 팽창된 열기가 온 섬에 가득찬/ 4월 3일 토요일, 그리고/ 새벽 2시/ 해안을 떠나던 물결들은 되돌아/ 어깨를 걸고 물려오고 있었다(43쪽)</p>	<p>죽창과 총을 든 전사들이/ 한라산에서 물밀 듯이 내려와/ 정해진 목표물을/ 하나씩 제거해나가기 시작했다(67쪽)</p>

상징적인 표현들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놓았다. 시학사판에서 좀 더 단호한 어조가 나타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시학사판의 이런 표현들이 작품에 나오는 다른 부분에 비해 그다지 과격하게 형상화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기검열로 바꿨던 부분이라고 여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음은 한 연을 모두 바꾼 것이나 다름없는 부분이다.

녹두서평판	시학사판
<p>지금도/ 성산포에서는 갯벌에 나간 어린 소녀들이/ 조개를 줍거나 바지락을 캐다/ 갑자기 하얀 해골이 튀어나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일이 허다하다(30쪽)</p>	<p>지금도/ 제주도에서는 깊은 동굴 속이나/ 중간간의 숲 속과 외진 바닷가 같은 곳에서/ 당시/ 쥐도 새도 모르게 수장되거나 매장되었을/ 하얀 해골들이 수시로 발견되고 있다(41~42쪽)</p>

녹두서평판보다 시학사판이 사실적인 면에 더 유념한 텍스트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갯벌’ 이니 ‘바지락’ 이니 하는 시어들은 제주도의 상황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다. 이는 현지에서 추후에 보강 취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녹두서평판	시학사판
<p>그밤이 토해낸 아침/ 우리는 보았다/ 오래도록 쌓여온 설움의 분출/ 거리에 가득찬, 멍든 뒤통치/ 네게도 내게도 피어린 발꿈치로/ 해방의 기쁨이 찾아온 거리(43쪽)</p>	<p>그밤이 토해낸 아침/ 우리는 보았다/ 그토록 오래 쌓여온 서러움의 분출/ 절망과 좌절로 가득찬/ 저 거리의 병든 눈빛들/ 가난에 지칠 대로 지쳐/ 이젠 목숨마저 놓아버린/ 저 무심한 표정들/ 그 얼굴들에 한 줄기 햇살이/ 비춰주고 있음/ 우리는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다!(68쪽)</p>

위의 경우는 새로운 내용이 대폭 삽입된 부분으로, 좀더 구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부분은 거의 동일하지만, 4행 이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민중들이 한줄기 희망을 품게 되는 상황을 더욱 명확히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행을 합친 부분은 아주 적은 반면에 행갈이를 새로 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연히 더 길어진 작품이 되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볼 때, 시집으로 엮어진 『한라산』은 '복원판' 이라기보다는 '개정판'으로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한다. 이산하는 출옥 후 「한라산」 제2부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작품을 고치고 2부를 이어가려는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산하는 1990년에 「한라산」 2부를 쓰기 위해 제주 땅을 밟았다.¹⁷⁾ 그로부터 2년 동안을 제주도에서 지내며 그 작업을 시도했다. 「세월—「한라산」 제2부 서시 중에서」는 이산하의 그런 작업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의 한 호흡은 100년이요/ 인생의 한 호흡은 30년이지만/ 한번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뱉는/ 그 짧은 시간에도 아직, 우리는/ 씨앗 뿌려 열매 거둔 일 한 번 없었고/ 강물 따라 바다에 이른 적 한 번 없었다//

세월 따라 구름 따라/ 정처없이 떠돌다/ 집도 잃고/ 나라도 잃었던 시절//
사상이 있어야/ 사람 행세하고/ 사상이 같아야/ 친구도 할 수 있었던 시절/
종이보다 지폐가 더 많았던/ 물보다 술이 더 많았던/ 처녀보다 창녀가 더 많았던 그 시절들//

역사의 등뼈 마디마디 꺾어놓았던/ 그 불구의 세월/ 더러는 가슴속에 폭탄을 안고/ 더러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수많은 청춘의 꽃들/ 그 수많은

17) 이산하는 "1990년, 석방 이후 '전민련' 편집실에서 잠시 일하다 제주도로 갔는데, 나로서는 처음으로 밟는 땅이었다"(위의 책, 146쪽)며 1990년에 난생 처음 제주도를 방문했다고 했으나, 이는 잘못된 기억이다. 그는 1988년 12월에 제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신문 인터뷰에서 그는 "당시 체험자의 증언을 듣기 위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그가 1990년에 4·3 취재를 위해 난생 처음 제주도를 방문했다는 회고는 1988년의 일을 착각한 것일 수도 있다. 「제주를 찾은 서사시 「한라산」의 시인 이산하 씨」, 『제주신문』 1988년 12월 26일자.

은 청춘의 녀들/ 잊어버리자니/ 역사의 공범이요/ 기억하자니/ 부끄러움이
앞서는/ 그 무정한 세월//

그러나, 그 열매 있는 한/ 그러나, 그 바다 있는 한/ 씨앗은 계속 뿌려질
것이고/ 강물 또한 끊임없이 흐를 것이니¹⁸⁾

이 시의 분위기는 「한라산」 제1부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흥분하지
않으면서 묵직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격정적인 목소리가
많이 줄어든 반면에 펴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슴에 폭탄 같은
시를 창작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분노와 노여움” 자체가 1987년의
작품이라면, “그 분노와 노여움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천둥 같은 그리움
만큼은 여전히 삼엄하고 또 여전히 장렬하다”¹⁹⁾는 심정이 반영된 작품이
「세월」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라산」 제2부는 완성되지 못했다.

제주땅을 밟는 나의 발걸음은 들판의 시커먼 들들처럼 무겁기만 했고, 시
간이 지날수록 내 가슴은 자꾸 산처럼 무너져가고 있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었고 산 자는 죽은 자보다 더 말이 없었다.

(…) 현실적으로 나를 더욱 절망케 한 것은 4·3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대구 인민항쟁이나 지리산 빨
치산 투쟁 등 육지에서의 여러 사건들은 다소 거칠긴 하나 좌우익이라는 개
념의 기존 패러다임으로 일정 정도 분석이 가능한데, 제주도는 전혀 그렇지
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민족 대 반민족’이라는 틀도 있었으나 그것은 숲도
나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일그러진 거울일 뿐이었다. 기본적으로 그만큼
육지와와의 정서적 뿌리가 너무나 달랐던 것이다.(…)

삶은 수평과 수직의 어긋남이고 그 어긋남이 제주인의 정서 깊숙이 자리잡
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제주도에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내 손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보아야 그 정서의 어긋남에서 비롯되는 ‘제주도의 힘’
을 어렵듯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인은 이미 태생적으로 모두 삶의
바닥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바닥까지 내려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비록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제주에 다녀온 이후 인간에 대한 최소한
의 애정마저 사라져버렸다. 또 그것이 다시 생기리라고 선불리 기대하지도

18) 『제주작가』 제3호(실천문화사, 1999), 13~14쪽.

19) 이산하, 「저자 후기」, 앞의 책, 131쪽.

않는다. 이런 상태라면 「한라산」의 완결이라는 속제는 좀더 미뤄지지 않을 수 없다.²⁰⁾

제주도 현지 취재 전의 4·3 인식과 그 후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이산하는 말하고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산하가 제2부 집필을 통해 서사시 「한라산」을 완결하는 일은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1부를 면밀히 검토하면 그런 예견이 더 분명해진다.

3. 「한라산」의 4·3 인식과 그 지향점

「한라산」²¹⁾은 '서시'를 포함해 모두 5개의 장과 25개의 절로 이루어진 1300여 행의 장편서사시다. 각 장과 절에 따라 이 작품의 개요를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시〉

1. 미제국주의 침략사 120여 년에 대한 민족해방투쟁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함.
2. 제주도의 피어린 역사를 잊을 수 없음.
3. 30여 년 만에 학살의 숲을 거닐며 누가 그 역사를 기억하는지 문제제기.
4. 미국에게 붉은 피를 돌려줘야 함을 강조.

〈제1장 정복자〉

1. 움직이는 세계: 미국의 패권주의와 한반도 정세.
2. 진주해 온 미군: 역동하는 해방정국과 정복자 미국의 진주.
3. 참물해 가는 남한: 미국의 식민지화하며 굶주려가는 남한의 상황.
4. 갈림길: 이승만을 앞세운 좌익탄압에 제주도에서 폭탄이 터짐.
5. 대참화극: 4·3봉기와 잔인한 진압, 그리고 40년의 은폐.

20) 위의 책, 147~149쪽.

21) 여기서의 기본 텍스트는 『녹두서평』판으로 삼았다. 「한라산」의 경우 발표 당시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도 그렇거니와 시학사판은 달라진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제2장 폭풍전야〉

1. 꽃샘추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러 가는 민중들의 눈에 비친 제주 풍경.
2. 한 소년의 죽음: 3·1기념대회에서 경찰 발포로 유혈사태가 발생함.
3. 총파업: 유혈사태에 따른 도민 총파업.
4. '제2의 모스크바' 그 마지막 밤: 경찰이 증원되면서 대대적인 검거가 벌어짐.
5. 진군을 기다리는 아들을 위하여: 입산한 청년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다짐.

〈제3장 포문을 열다〉

1. 어둠을 찢은 한 발의 총성: 4월 3일 새벽 봉기의 시작과 무장대의 기세.
2. 불이여 불길이여: 배신당한 고통의 땅에 인민공화국을 향한 불길이 타오름.
3.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 무장대와 경찰토벌대가 대립하면서 4월 17일 첫 교전이 벌어짐.
4. 빨갱이 사냥: 미군방첩대가 활동하는 가운데 빨갱이 소탕 작전이 전개됨.

〈제4장 불타는 섬〉

1. 로울러 작전: 한 집씩 차례로 더듬어 쓸어내는 '로울러 작전'으로 섬사람들의 희생이 잇따름.
2. 장밋빛 피의 거리: 온갖 비참한 희생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섬의 상황.
3. 죽음의 정글에서: 도피중인 민중들의 힘겨운 생활.
4. 항쟁의 불꽃: 온갖 탄압 속에서도 해방전사들의 돌격이 그치지 않음.
5. 그리움: 여기저기 널려진 시신들과 반쯤 엎어진 검은 고무신의 사연.
6. 비밀회담: 4·28회담으로 사태가 수습되는 듯하다가 다시 대결국면으로 치달음.
7. 산으로 산으로: 인민유격대의 5·10단선 반대투쟁과 주민들의 입산행렬.
8. 토벌대장 암살: 도민들을 인질로 한 게릴라 소탕작전의 장본인 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암살됨.
9. 바비큐 작전: 토벌대가 암살 보복으로 삼광정책·삼진정책을 펴면서 온 섬을 초토화시킴.
10. 날개 달린 게릴라: 유혈 중순 이후 토벌대의 본격적인 토벌과 맞서는 게릴라들의 민첩함과 강인함.
11. 수색에서 지다: 박진경 암살범 문상길 중위 등이 밀고로 체포되어 수색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음.

위의 개요를 좀더 축약·정리해 보면, 〈서시〉에서는 4·3의 전반적인 양상을 개괄하면서 그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고, 〈제1장 정복자〉에서는 미국의 정복자적 야욕에 남한이 피해를지는 가운데 4·3의

대참화가 발생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장 폭풍전야>는 3·1사건으로 도민 총파업과 검거선봉이 이어지면서 입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봉기 직전의 상황을 작품화하고 있다. <제3장 포문을 열다>에서는 드디어 4·3 봉기가 시작됨에 따라 무장대와 경찰토벌대가 대결하는 국면을 다루고 있고, <제4장 불타는 섬>에서는 무자비한 토벌이 진행되는 가운데 4·28 협상이 무효화되면서 초토화작전이 전개되고 토벌대장 박진경을 암살한 문상길 중위 등이 체포되어 처형당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다.

시간의 전개 면에서 볼 때, 해방과 더불어 미군이 진주하는 상황부터 1948년 9월 23일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가 경기도 수색의 한 기슭에서 총살당하는 시점까지가 작품화되고 있다. 이 기간은 4·3의 시기 구분에 따르면 봉기 이전의 '인민위원회 주도기', '미군정 공세기'와 봉기 이후의 '무장대 공세기', '경비대 주도 토벌기'²²⁾에 해당된다. 미군의 진주, 3·1사건, 총파업과 검거선봉, 4·3봉기, 4·28평화협상, 5·10선거, 박진경 토벌대장 암살 등의 당시 사건들이 작품에서 박진감 있게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발생한 4·3의 중대한 사건들 가운데 일부는 전혀 형상화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8월에 김달삼을 비롯한 지도부의 일부가 해주대회 참석차 월북한 사실이나 8·25지하선거의 양상 등에 대해서는 「한라산」에서 일체 언급이 없다. 4·28평화협상에 관해서는 협상 당시의 대화내용과 분위기까지 상술하면서도 그것이 파기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5월 1일의 오라리방화사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 4·3의 전개과정에서 대대적인 학살은 1948년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국면이 「한라산」에서는 1948년 9월 이전의 형국으로 집약되어 그려지고 있다.²³⁾ 1947년 3·1사

22)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전예원, 1994), 9~12쪽, 『제주 4·3사건진상보고서』(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에는 봉기 이전의 경우 '광복 전후의 제주도 상황'과 '3·1사건과 무장봉기의 전조'로 기술하고 있으며, 봉기 이후의 경우는 시기구분을 통해 '무장봉기와 5·10선거'(1948. 4. 3~1948. 5. 10), '초기 무력충돌기'(1948. 5. 11~1948. 10. 10)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3) 북한작가 양의선이 쓴 장편 『한나의 메아리』(2000)에도 1949년에 벌어진 사건들을 5·10선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그리는데, 이는 봉기직후의 분위기와 민중

건 당시 오현중학교 집회만 기술하고 이어서 전개된 제주북국민학교 집회가 빠졌다(33쪽)든지, 파업투쟁이 3월 10일이 아닌 3월 12일부터 전개되었다고 한 점(36쪽), 도지사 박경훈을 '박경원' (40쪽)으로 명기한 점 등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다. 물론 4·3연구가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인 탓이 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은 시학사판 시집에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마무리가 어색하게 구성된 것은 이 작품의 맹점으로 판단된다. 봉기지도부의 해주대회 참석, 유격대 사령관 이덕구의 사망,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폐지, 한라산 금족령 해제, 최후의 빨치산 생포 등 달리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박진경 암살범 처형으로 마무리한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문 중위와 손 하사는, 사태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봉기지도자들도 아니고 제주민중의 표상적인 인물도 아니다. 이들의 처형이 작품의 대단원을 매듭지을 사건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이산하가 4·3의 전반을 통찰하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결국 이산하의 4·3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주도면밀한 것이 아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라산」 창작 당시 이산하의 4·3 인식은 어떤 수준이었으며, 어떤 의도로 4·3의 문학화를 꾀하였는가.

(...) 변혁기인 1980년대 중후반에 하나의 운동적 방식으로 전개되던 공동 창작이나 집단창작이라는 방법적 무기를 굳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운동권에서 문건으로 격문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크게 차이가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한라산」의 창작 배경 역시 나는 그런 운동적 방식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더구나 은폐된 제주 4·3의 진실을 하루빨리 만천하에 폭로해야 한다는 나름의 절박성은 독주의 여유가 주어지지 않을 만큼 시간에 쫓기는 나로 하여금 협주자를 물색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²⁴⁾

학살의 참상을 밀접하게 연관시키려는 의도에서 생기는 오류로 보인다. 김동윤, 「북한소설의 4·3 인식 양상」, 『4·3의 진실과 문학』, 188쪽 참조.

24) 이산하, 「저자 후기」, 앞의 책, 138쪽.

또한 「한라산」 작업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특히 내가 중점을 두고 쓸 수밖에 없었던 대목은 전체의 흐름을 아우르는 도입부의 '서시'였다. 그것은 아무래도 '민족해방'과 '반미'라는 당시 나의 정치적 화두 때문이었을 것이다.²⁵⁾

「한라산」은 철저하게 '운동적 방식'의 일환으로 씌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해방'과 '반미'의 입장을 견지하고 창작된 작품임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4·3문학의 흐름상 시기적으로는 다소 들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⁶⁾ 민족해방과 반미라는 의미를 최우선으로 강조하여 운동적 방식으로 표출한 문학은, 4·3문학의 경우 이산하의 「한라산」이 처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의 4·3문학에서는 민중수난사적인 면이 주로 강조되어 왔다. 소설에서는 현기영을 비롯하여 현길언과 오성찬, 시에서는 김수열이 1980년대 중반까지의 4·3문학을 주도했는데, 이들의 작품은 공히 제주사람들의 수난상 등 사태의 비극성을 드러내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산하와 같은 문제의식은 잠재해 있을 뿐 아직 수면 위로 표출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북한에서 나온 강승한의 서사시 「한나산」(1948)이나 함세덕의 희곡 「산사람들」(1949~1950)은 반미와 민족해방의 시각을 견지한 점에서 이산하의 「한라산」과 상통하는 면이 많다.

「한라산」의 반미적 성격은 서시의 처음부터 강하게 제기된다. 1980년대 중후반에 운동권을 중심으로 뜨겁게 전개되었던 반미의식이 이 작품을 통해 노골적으로 표출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어언 120여 년 전
 동아시아의 해군기지로서 조선이 결정된 지
 80년의 모진 세월이 흐른 1945년 불멸 여름,
 한 손엔 '뺑'과 또 다른 한 손엔 '해방군'의 탈을 쓰고

25) 위의 책, 139쪽.

26) 4·3문학의 흐름에서 현기영의 「순이 삼촌」이 발표된 1978년부터 1987년 6월 항쟁 이전까지는 '사태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에 해당한다. 김동윤, 앞의 책, 17~22쪽과 57~63쪽 참조.

발톱까지 무장한 채 당당하게 상륙한 그들은
 마침내
 순결한 조선의 하늘과 푸른 산하를 두 토막으로 분질러 놓았다.
 그리고 다시 40여 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렀건만
 총독부가 대사관으로 바뀌었을 뿐,
 '창살 없는 감옥' 식민지 산하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 침략사 120여 년
 다시 쓰여져야 할 피어린 민족해방투쟁의 한국현대사!(15쪽)

한국의 현대사는 곧 미제국주의 침략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방이 되었어도 일본의 총독부가 미국의 대사관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창살 없는 감옥' 꼴의 식민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땅은 아메리카의 한 주(州)"이며 "그들의 병영에서 짐승처럼 사육되어 왔"(16쪽)다고 단정한다. 이런 미제국주의의 침략사는 해방 직후의 제주도에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말한다. 따라서 미국의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 민족해방을 성취하는 것이 당시의 최대 과제였다고 「한라산」에서는 인식하고 있다. 그것이 이 작품에서 4·3 당시 빨치산 투쟁을 정당화하는 명분임은 물론이다.

1948년 4월 3일

'제2의 모스크바'

밤마다 먼저 간 동지들의 피를 묻고 살을 묻고 뼈를 묻는

혹한의 한라산

그 눈 덮인 산하, 붉은 피를 흘리며 끝내 숨겨간

이름없는 해방전사들의 끊어질 듯 끊어질 듯

끝내 이어지는 저 붉은 핏자국을

누가 잇는가

누가 잇을 것을 강요하는가(16쪽)

봉기주도세력을 해방전사로 당당히 내세우는 가운데 그들의 희생이 금기의 영역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들의 민족해방투쟁

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신념이 표출되고 있다. 비장함, 격렬함의 어조가 강하게 느껴진다.

그런 신념은 반미의식과 직결되는 것이다. 「한라산」의 가장 뚜렷한 목소리는 민족해방을 위한 반미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침략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거침없이 그려내고 있다.²⁷⁾ “마침내 미군방첩대(CIC)가 활동을 개시했다.”(47쪽)거나 “마침내 미국은 주한 미고문단 초대단장이자 펜타곤 내에서도 극우파로 이름 높은 윌리엄 L. 로버트 준장을 현지에 파견하여, 대규모 증원부대를 미군상륙함정으로 섬의 해안 곳곳에 대놓고, 미국식 ‘빨갱이 토벌전’을 개시했다.”(49쪽)는 부분 등은 그 대표적인 대목이다.

아울러 「한라산」은 무고하게 희생되는 민중들보다는 빨치산 투쟁에 직접 나서서 행동하는 이들을 주목하였다. 민중들의 희생은 봉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시에서 제시된 유격대의 봉기문을 비롯해서 경비대에게 보내는 글들은 이전의 4·3문학에서 접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미군은 즉각 철수하라!/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조국통일 만세!/ 제주 빨치산 만세!”(19쪽)와 같은 당시의 구호들을 그대로 드러내놓기도 했다. 이런 봉기문이나 구호들이 거침없이 표현됨에 따라 독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돌려주자.

오늘도 노란 유채꽃이 칼날을 물고 잠들어 있는

아! 피의 섬 제주도

그 4·3이며,

우리의 심장에서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이 진달래꽃을

27) 이런 점은 공안당국이 「한라산」을 국가보안법으로 옴아펜 구실로 작용하였다. “남한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사회로 규정하고 무장폭동을 민족해방을 위한 도민항쟁으로 미화하며, 인공기를 찬양하는 등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했다”(이산하, 앞의 책, 143쪽)는 것이 검찰 공소장의 한 부분이었다.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4·3에 대한 미화, 북한에 동조 등이 「한라산」을 단죄한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그 누가 꺾을 수 있으랴(19~20쪽)

‘돌려주자’의 대상은 4·3봉기를 짓밟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는 거의 해소되지 않았고 당시 미국의 비호를 받고 정권을 잡았던 세력들이 여전히 남한을 통치하는 주도세력이라는 인식이 다. 결국 현실에서의 반미 혹은 5공정권퇴진 투쟁과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그것이 「한라산」의 지향점이었다.

4. 「한라산」의 의의와 한계

당시 문단에서 「한라산」은 시를 통한 역사적 진실의 추구라는 면에서 우리 시의 영역을 확대시켰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특히 신경림은 당시에 「한라산」을 주목한 대표적인 문학인이었다.

최근에는 뚜렷한 목적성을 가진 시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보이지 않아요. 가령 『녹두서평』에 실린 이산하의 「한라산」 같은 것도 상당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더군요. 일부에서는 목소리만 높다고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목소리만 높은 시가 아니라 형상화란 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시입니다. 목적성을 가진 시가 반드시 시로서 마땅치 않은 것인가 하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될 것 같고 이 또한 시의 영역을 넓힌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²⁸⁾

저는 시를 통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를 주목해 왔습니다. 그 대

28) 신경림, 「대답: 시적 자아와 정직성—80년대 시와 시인들①」, 『문예중앙』 1987년 여름호, 71쪽. 신경림은 목적성이 뚜렷하면서도 시적 형상화에도 뛰어나다며 “「한라산」을 쓴 이산하는 상당한 훈련과정을 거친 사람이고, 여러 근로자 시인 가운데서도 박노해의 시가 주목받는 이유도 상당히 훈련받은 사람의 시이거든요. 뛰어난 테크닉·테크닉션인데, 어느 경우든 그런 게 있어야겠죠.”(72쪽)라고 말하기도 했다.

표적인 경우로 이산하의 「한라산」(『녹두서평』)을 들 수 있는데, 이 시는 당시 제주도의 민중적 삶과 그 정서를 형상화하는 데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일부에서는 목적성을 가진 이런 경향의 시를 금기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가 우리 시의 영역을 크게 넓혀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²⁹⁾

다시 한번 이산하의 「한라산」은 역사적 진실을 시를 통해 밝히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 표현이 지루하고 산문성을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³⁰⁾

신경림의 경우 「한라산」의 문학적 의미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경림은 「한라산」이 상당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목소리도 높으며 표현이 지루하고 산문성을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시를 통하여 한국현대사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 했으며 제주도의 민중적 삶과 그 정서를 형상화하는 데에도 성공한 작품이라고 추어올리고 있다. 결국 「한라산」은 한국문학 전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시의 영역을 크게 넓혀주고 있다는 평가인 셈이다. 작품의 장·단점을 적절히 지적하였다고 본다.

현기영은 4·3문학 혹은 4·3운동의 입장에서 「한라산」을 평하였다.

4·3을 민중항쟁의 이데올로기로 처음 다룬 작품으로는 이산하의 「한라산」이 있습니다. 1987년 6월항쟁의 벽찬 승리감 속에서 탄생한 이 작품은 분단논리에 주눅들지 않고 적나라하게 반외세 이데올로기를 토로하여, 독서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이산하의 돌파능력은 문학뿐만 아니라 현대사 연구자들에게도 크게 고무적이어서 4·3연구의 폭을 크게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반외세 자주화운동, 변혁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큰 업적으로 평가됩니다.³¹⁾

29) 신경림, 「합평좌담: '87년의 문단을 총점검한다」, 『문학사상』 1987년 12월호, 399쪽.

30) 위의 책, 401쪽.

31) 현기영, 「좌담: 제주민중항쟁 논의의 현단계」, 『제주항쟁』(실천문학사, 1991), 29쪽.

여기서 '6월항쟁의 벽찬 승리감 속에서 탄생' 했다는 언급은 시기상으로 볼 때 오해지만, 작품의 의의는 잘 짚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단 논리에 주눅들지 않고 적나라하게 반외세 이데올로기를 토로했다는 것, 4·3연구의 폭을 크게 확장시키는 돌파능력을 지녔다는 것, 반외세 자주화운동과 변혁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라산」을 4·3문학과 4·3운동에서 '큰 업적'을 수행한 작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과학자 고창훈은 4·3운동과 관련하여 이산하의 「한라산」이 4·3의 역사적 의미와 항쟁의 성격을 부각했다고 평가했다.³²⁾ 운동세력들에 의해 4·3이 이슈로 떠오른 것이 1987년이었고 「한라산」도 그 즈음에 발표되면서 사회적인 주목을 끌었다는 것이다. 사실 제주도 학생운동권의 경우 4·3은 관심의 영역이긴 하면서도 쉽사리 그것을 표면화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1986년에는 학생회관에 제상을 차려놓고 4·3위령행사를 치르긴 했으나,³³⁾ 시위의 구호로 내세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것이 촉발된 것은 1978년 4월의 4·3대자보 사건이었다.³⁴⁾ 이는 「한라산」의 발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산하의 「한라산」은 4·3에 대해 좀더 큰 틀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초의 상황에도 4·3은 거의 공론화하지 못

32) "4·3을 이슈화하는 데는 두 분야의 공로가 크다고 봅니다. 4·3을 현실의 복판으로 끌어내는 데는 문학의 공로가 제일이었죠. 다음으로 4·3을 현실의 관심으로 끌어내는 데는 운동세력의 공로가 있었죠. 4·3의 역사성과 항쟁의 성격을 부각한 것은 이산하의 「한라산」이라는 장편시와 이와 비슷한 시기에 운동세력들이 4·3의 역사적·현실적 복원을 제기하였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고창훈, 「좌담: 제주민중항쟁 논의의 현단계」, 『제주항쟁』, 38쪽.)

33) 『계대신문』 1986년 4월 10일자 「아라·我羅」 참조.

34) 4월 3일 대학내 게시판에 총학생회·여학생회·사회과학대학생회 명의로 4·3대자보가 부착되자 경찰이 학생회 간부들을 연행하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에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거부하면서 잇따른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계대신문』 1987년 5월 13일자 6면 「기자방담: 중간고사 거부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되돌아보며」·「공개장: 중간고사 거부 사태를 보며」, 7면 「전체 90% 중간고사 거부」 등 참조.

하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금기의 벽을 허물어가던 문학의 영역에서도 4·3을 무고한 양민의 억울한 희생과 그 아픔의 상존이라는 측면에서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사태의 원인 등 국제정세와 한국현대사 속에서 4·3을 자리매김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이었다. 반면에 이산하의 「한라산」은 충격요법을 동원하여 4·3의 인식 틀을 확산시켰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4·3에 대해 좀더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절실함을 지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에 소개되는 재일작가 김석범의 『화산도』를 비롯한 일련의 소설, 북한작가 김일우의 『섬사람들』 등과 함께 시각과 논의의 다양화에 기여했다는 데에서도 「한라산」의 의의가 포착된다.

그러나 「한라산」이 4·3문학이나 4·3운동에 긍정적인 작용만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후반의 상황에서는 4·3이 아직 금기에서 풀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전국민적으로 정서적 공감을 얻는 일이 중요했다. 하지만 「한라산」이, 제주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양상이나 현실적인 분위기는 거의 감안하지 않은 채, 반미와 이념의 문제를 노골적으로 내세움으로써 4·3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을 어렵게 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냉전이데올로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4·3을 불온시하는 풍조를 더욱 강화시키지 않았나 한다. ‘인공의 깃발’(17쪽), ‘북한의 사회주의 발전’(24쪽), ‘공산주의 전통’(25쪽) 등 신중하지 못한 용어를 구사함으로써 공안당국이 4·3진상규명운동을 친북행위로 몰아 탄압하는 빌미를 주기도 하였다.

“이산하 시인의 장편 서사시 「한라산」의 발표는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제주대 학생운동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지만 1987년 4월 9일 강연에서 “운동권 학생들이 4·3에 대하여는 일체 논의하지 말고 피해갈 것을 요구하여 강연 내내 4·3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증언³⁵⁾에서 보다시피 그것이 금기의 영역임을 더욱 각인

35) 고창훈, 「제주도민의 4·3에 대한 주제적 인식과 문제해결 과정의 성과와 과제」, 『4·3도민토론회: 4·3운동 어디까지 왔나(자료집)』(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

시키는 역기능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념의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분단이데올로기에 쫓겨있던 4·3이 탈이데올로기의 열망을 어느 정도 경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³⁶⁾는 지적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산하의 「한라산」은 4·3의 역사적 의미와 항쟁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그 인식 틀을 확산시키는 가운데 문학의 영역을 넓히고 다양성을 도모한 성과가 있으면서도, 반미와 이념적인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4·3을 불온시하는 풍조를 강화시키는 반작용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장취재가 결여되어 그 정서적 접근이 부족한 상태에서 작품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이산하의 장편서사시 「한라산」을 4·3문학의 맥락에서 살펴 보았다. 논의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라산」은 김봉현의 『제주도 피의 역사』 번역본을 저본으로 다룬 현대사 자료들도 참조하면서 김형수 시인의 도움을 받아 집필한 것으로, 저본과 마찬가지로 4·3을 반미인민항쟁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최근 간행된 단행본 시집 「한라산」은 여러 근거에서 볼 때 ‘복원판’이라기보다는 ‘개정판’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한라산」은 8·15해방 직후 미군이 진주하는 상황부터 1948년 9월 박진경 암살범인 문상길 중위 등이 총살당하는 시점까지 다루고 있다. 그러나 8월의 지도부 일부 월북, 8·25 지하선거 양상, 5월 1일 오라리 방화사건 등 그 기간 동안의 주요 사건에 대해 형상화하지 않고 있으며, 마

복을위한도민연대, 2003), 16쪽.

36) 양영길, 「4·3문학의 흐름과 과제」, 『한국문학사 인식 어떻게 할 것인가』(푸른사상, 2001), 358쪽.

우리가 어색하게 구성되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 이는 이산하의 4·3에 대한 인식이 주도면밀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라산」에서는, 4·3봉기를 짓밟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는 거의 해소되지 않았고 당시 미국의 비호를 받고 정권을 잡았던 세력들이 여전히 남한을 통치하는 주도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현실에서의 반미 혹은 정권퇴진 투쟁과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운동적 방식'으로 4·3을 형상화한 「한라산」의 확실한 지향점이었다.

넷째, 「한라산」은 한국문학의 영역을 넓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4·3의 역사적 의미와 항쟁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4·3문학에도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면서 작가들에게 사태에 대한 과학적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한라산」은 반미와 이념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되레 4·3을 금기시·불온시하는 풍조를 강화시키는 반작용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산하 시인이 현장취재를 하지 못해 그 정서적 접근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의 수단으로 작품화한 데 따른 현상으로 판단된다.